

건축물과 역사는 키워드로 탐색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9 · 마지막 회

에필로그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교우회보에 기고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다.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8회에 걸쳐 연재했으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구성이었지만, 이번 글로써 소회를 적으며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목과 서술방법에 관하여

먼저 연재물의 제목을 좀 짚어보자. 여기엔 다층적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필자는 제목을 두고 〈고려대학교 건축물의 역사〉와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사이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것은 고려대학교의 건축물을 살피고 동시에 이로써 학교 전체의 역사를 하나의 관점에서 개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즉, 역사를 보는 다수의 관점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건축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이런 의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재는 '건축물의 역사'가 주제다. (여기서 '건축' 대신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고찰을 요하지만 이 논의는 생략하자.) 따라서 일반적 '고려대학교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스토리도 전개된다. 필자는 한 세기가 넘는 본교 건축사에서 한국 근현대건축사를 단적으로나마 (비록 그 굴곡

의 낙차가 대폭 완화돼 있지만) 읽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연재물이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를 표방했지만 학교 전체를 아우르지 못했음은 한 번 더 밝혀야 할 듯하다. 1회 차 '프롤로그'에서 적었던 것처럼, 글 전체는 서울의 안암동 캠퍼스를 중심으로 서술됐고, 세종캠퍼스나 서울의 정릉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런 한계는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왕 '프롤로그'를 들춰봤으니, 거기서 처음 예고했던 사항과 달라진 면을 언급하는 게 좋겠다.

하나는 이 연재물의 바탕이 됐던 필자의 단행본 〈고려대학교의 건축〉(고려대학교 출판부)의 출간 건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책은 지난 해 여름 이미 출간됐어야 하지만 잠시 미뤄졌으니, 독자의 혼동이 없길 바란다. 하지만 이는 곧 빛을 보리라 생각되며, 오히려 본 연재물이 완료된 이후의 출간이 더 나은 결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글들에서 고려대학교 건축물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서술한 방식에 관한 것이다. '프롤로그'에서 밝혔던 본교 건축사의 다섯 단계 시기 구분은 ① 안암동 이전 시기; ② 안암동 개막과 석탑의 '삼부구성' 완성기; ③ 모더니즘 도입기; ④ 캠퍼스 확장 및 현대화기; ⑤ 새천년 건축기,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전체 글 가운데서 기본 열개로 작동

했다. 하지만 각 시기를 개괄한 후 각각의 대표 건축물을 선정해서 서술하겠다는 계획이 늘 일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매회의 글들이 연속선상에 있지만 독립된 성격도 갖기 때문에, 단행본의 논리와 동일하게 구성될 수만은 없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변명할 사안이 있다. 앞서 이 연재물이 건축사 서술임을 강조했지만 전문적 관점에서 보자면 꽤 초보적인 서술법을 견지했음에 관해서다. 건축사 방법론(historiography of architecture)의 난해한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필자임에도 교우회보의 독자 대부분이 건축 비전문가인 까닭에, 가급적 모두가 알기 쉬운 언어로 글을 풀어가고자 했다. 건축이라는 것이 형태(form), 구축법(tectonics), 공간(space)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인자들과 관계하는 장르인데, 사실 이 연재물은 이해가 용이한 전자의 조형언어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연재물은 필자의 다른 글들보다 독자와의 소통이 원활했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허나 이런 와중에는 어떤 사태에 대한 단순화의 오류가 내재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한다. 혹여 그런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한 역량 탓일 테다.

남은 과제들

그동안 필자의 줄문에 관심을 보여주시던 많은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본교의 건축물과 역사에 관한 뒷이야기나 더 논의할 점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일

기획연재 전체 목차 (2014. 6~2015. 12)

1. 프롤로그
2. 보성전문 초기: 수송동의 한옥과 목조교사, 1905-1918년
3. 보성전문 초기: 낙원동과 송현동 시대, 1918-1934년
4. 안암동 시대의 개막과 고대 석탑의 발흥: 보성전문의 신교사(1933.9-1934.9)(상)
5. 안암동 시대의 개막과 고대 석탑의 발흥: 보성전문의 신교사(1933.9-1934.9)(하)
6. 보성전문 도서관(1935-37), 그 건축적 연원을 찾아서
7. 서관의 건축(1954-55; 1959-61)과 캠퍼스 석탑의 삼부구성
8. 석조고딤 모티브의 지속과 변용: 1950년대 후반의 건물들
9. 고딤 캠퍼스에 불어온 모더니즘의 바람: 1960년대 박동진의 근대주의 건축
10. 캠퍼스 마스터플랜(1968-69)의 도입과 정문 건립(1965; 1971)
11. 모더니즘 건축물이 석조고딤 캠퍼스에 들어서는 방식: 학생회관(1970-71)과 상과대학 종합교사(1970-72)
12. 캠퍼스의 확장 및 건축의 현대화: 1980-90년대 스케치
13. 녹지캠퍼스의 개발과 의과대학의 이전(1986-91)
14. 애기능 캠퍼스의 발전: 과학도서관(1982-83)에서 테크노콤플렉스(1994-96)까지
15. 인촌기념관(1989-91)과 한국학관(1997-99): 고대정신의 발현 혹은 다양성
16. 100주년 기념사업과 2000년대 건축풍경
17. 캠퍼스 지하개발의 효시: 중앙광장(1999-2002)과 하나스퀘어(2005-06)
18. 고대 건축의 새로운 경향: 타이거플라자(2004)와 해송법학도서관(2006-07), 그리고 이후
19. 에필로그

일이 거명하긴 힘들지만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로써 고려대학교 건축사에 대한 필자의 탐험을 우선 일단락 지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겐 여전히 미제가 남는다. 그것은 인촌 선생이 보성전문 인수 전 구미여행 가운데 촬영했던 사진과 활동사진이 어딘가에 아직 보존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 때문이다. 그걸 참고하며 건축가 박동진과 안암의 석탑을 구상했다니, 만약 그 자료들이 남아 있어 열람 가능하다면 훨씬 더 든든한 기반 위에 우리의 건축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보성중학교 창립60주년(1966)

을 기념해 발행한 《善成》誌에 보성전문 초기 수송동 시대의 건축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구하지 못했다. 그 역시 볼 수 있다면 필자가 후일을 기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주저리주저리 뒷말이 너무 길어진 듯하다. 지면을 허락해준 교우회보와 독자제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맺는다.

〈관련 특집좌담 16·17면〉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WILLBES
대한민국 성인교육의 중심! 1등 교육기업, 윌비스가 만들어갑니다.
SUCCESS

대한민국
성인교육의 중심을
지향합니다!!

www.willbes.com

START
YOUR SUCCESS WITH WILLBES

취업! 합격! 성공의 지름길! 대한민국 1등 교육기업 윌비스

www.willbes.com www.willbes.net www.willbesedu.co.kr www.willbesland.co.kr

윌비스사이버아카데미 t.1544.5006 (고등고시 | 공무원 | 임용고시 | 경찰 | 변호사시험
전문자격증 | 외국어 | 온라인서점)

한림법학원 t.1544.1881 (사법시험 | 5급공채(행정·외무·국립외교원) | 사법연수원예비과정
변호사시험 | PSAT | 토익·외국어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윌비스아카데미 t.1544.0330 (7·9급 공무원 | 법원 | 검찰 | 교정 | 세무관세 | 경찰공무원 | 경찰간부 | 교원임용)

윌비스특허아카데미 t.02.553.6226 (변리사)

부평윌비스공무원/경찰학원 t.1544.1661 (일반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윌비스출판 t.02.883.0202

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t.02.1544.5007

주식회사 윌비스 대표이사 **전병현(법학 71)**